

# 일제 수탈의 아픈 기억 안고 달린 '100년'

### 목포역 개청 100주년 기념식·희망콘서트 등 행사 다양

호남선의 출발이자 마지막 종착역인 목포역이 15일로 개청 100주년을 맞는다.

지난 1913년 문을 연 목포역은 일 본강점기 수탈의 현장이라는 아픈 과거와 함께 1960~70년대 봉제·가발·신발공장 등지로 팔려간 수많은 누이들의 굴곡진 현대사를 관통해온 역사의 현장으로 남다른 의미를 지닌 곳이다.

목포역은 1979년 7월 재건축에 이어 2004년에는 KTX 열차기 운영을 시작했다. KTX는 매일 상·하행선 24회가 운행하고 있으며, 새마을호가 4회, 무궁화호는 16회 운행 중이다. 하

루 평균 4,000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연간 140만 명이 목포역을 드나들고 있다.

목포역은 15일 오후 2시 목포역광장 특설무대에서 목포역 개청 100주년 기념식과 희망콘서트를 시작으로, '목포역 ±100년의 희망 찾기'란 주제로 다양한 기념행사를 펼친다.

기념행사는 구술채록 아카이브(5~9월), 다큐멘터리 제작(5~7월), 기록사진 전시회(15일~6월15일), 미술 및 시화전시회(15일~6월15일), 미래비전 희망포럼(5~6월), 기념식 및 희망콘서트(15일) 등이 열린다.

특히 '구술채록 아카이브'와 '다큐멘터리 동영상 제작'은 목포역 철도 개통 100년간의 각종 변천사와 사연 등을 채록해 문헌과 동영상자료 등의 사료로 보존된다.

또 지역과 함께 발전해 온 목포역의 각종 시각자료들이 전시될 기록사진전 '목포역 ±100년의 기록전'은 근대역사문화와 도시의 아젠다로 지니고 있는 목포의 특성이 살아나는 생생한 시간여행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의 중진 미술작가 약 30명이 참가한 '목포역 ±100년의 희망 찾기전'을 통해 예향 목포의 창조적 서정



일제강점기 목포역 전경.

과 미학적 감성이 담긴 미술작품도 전시된다.

이와 함께 시민과 함께하는 기념사업으로 '미래비전 희망포럼'과 철도와 목포역을 노래한 전국의 시인·작가를 초청한 현장시화전 '시와 그림으로 만나는 목포역' 등이 진행된다.

김종만 목포역장은 "이번 기념행

사는 목포역을 중심으로 100년 동안의 지나온 역사를 점검해 새로운 미래의 희망을 마련하는 자리"라며 "다양한 문화행사를 매개로 목포역과 지역민이 어우러진 문화커뮤니티의 기능이 확충되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 하의 3도 농지탈환 희생자 위령제

신안군은 지난 10일 하의 3도 농지탈환운동의 희생자들을 위한 위령제를 신안군 하의면 하의3도 농민운동기념관에서 봉행했다. 이날 위령제에는 희생자 유가족과 김학윤 하의3도 농지탈환 기념회 회장, 박우량 신안군수, 각급 기관단체,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 “작은 봉사가郡 알리고 축제 성공 보탬”

### 함평나비축제 성공 원동력 자원봉사자들

제15회 함평나비대축제가 지난 8일 13일간의 대장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가운데 행사장에서 구슬땀을 흘렸던 자원봉사자들이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찬사를 받고 있다.

자원봉사자들은 나비축제 기간 동안 총 21개 프로그램에 980명이 투입됐다. 특히 이들 대부분이 농업이나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데다 바쁜 농번기철임에도 불구하고 새벽에는 농사일을 하고 바로 축제현장으로 달려와 하루도 빠짐없이 각자 맡은 분야에서 열성적인 봉사활동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유리온실이어서 다른 곳보다 높은 온도 때문에 근무하기가 힘들었던 자연생태관에서 안내를 맡은 오복순 씨는 “한 관광객이 친절할 안내에 감사한다며 손수건으로 땀을 닦아주셨다”며 “힘들지만 작은 봉사

가 우리 군을 알리고 축제 성공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니 높은 온도마저 느끼지 못했다”고 보람을 나타냈다.

휴일에는 관내 13개 중·고등학교 학생 860여 명이 환경미화과 각종 프로그램 보조로 봉사활동에 동참하기도 했다.

안병호 함평군수는 “나비축제를 비롯해 지역축제에서 활약하는 자원봉사자는 지역발전과 축제성공의 큰 원동력”이라며 “헌신해 주신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함평군에 등록된 봉사자는 10개 단체 8049명으로, 지역 축제와 생활제 안에서 공공서비스 영역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 문화예술 재능기부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함평=황은희기자 hwang@

## 무안군, 서울 학부모·어린이 135명 초청 도자기 빚고 모내기·염전 갯벌 체험

무안군은 14일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주말 서울 도봉구 학부모와 어린이 135명을 초청해 농산물 생산 과정 체험 견학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서울 도봉구 학교 급식으로 친환경 쌀을 납품하고 있는 무안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과 꿈어울린친환경농조합법인 주관으로 마련됐다. 학부모와 어린이들은 이번 체험행사를 통해 모내기 체험, 염전 갯벌체험과 도자기 체험 등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현장교육 및 체험

활동을 했다.

군 관계자는 “이 사업은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학교급식에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현장을 직접 체험할 수 있어 학부모와 학생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은 올해 서울 도봉구 어린이집, 학교 등 196개소를 대상으로 친환경 쌀 217t을 학교급식으로 납품하는 등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권 염전 갯벌체험과 도자기 체험 등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현장교육 및 체험

/무안=김민준기자 jun@

## 13년째 노인위안찬치 별인 진도 오룡청년회

진도군에서 올해로 13년째 노인위안찬치를 받고 있는 봉사단체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14일 진도군에 따르면 고군면 오룡청년회(회장 김중수)가 최근 고군면 용장, 벽과 등 5개 마을 주민 300여명을 모시고 노인위안찬치를 가졌다. 오룡청년회는 고군면에 위치한 태양광 발전소 제조업체인 건비와 회원들이 기금을 조성, 매년 노인 위안찬치와

함께 불우이웃돕기 등의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오룡청년회는 20년 전인 지난 1993년 회원 50여명으로 창립해 계속 회원 수가 늘고 있다. 김중수 회장은 “어려운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 사업과 주민 상호 사랑과 희망을 나눌 수 있는 봉사를 지속적으로 찾아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 신안, 희망복지지원단 구성 소외계층 지원

신안군이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체감도를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군은 14일 “지난해 4월 희망복지지원단을 구성해 민간 지역사회복지협의회와 협력, 지역 내 복지 소외계층에 대한 관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연계, 지원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희망복지지원단은 통합사례관리사업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는 물론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보호에 나서고 있다. 또 장애인 천사(1004)의 섬 신안복지재단에서는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들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생계비 및 물품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국내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해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를 위한 기부캠페인으로 후원금 받는 등 조금이라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 전북

### 한우 고급육 생산 수정란 이식 결실

#### 순창, 암송아지 5마리·수송아지 9마리 생산

순창군이 한우 고급육 생산을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한 수정란 이식사업이 결실을 맺고 있다.

지난해 수정란을 이식한 어미소 30두에서 이달 8일 인계면 권봉용씨 농장을 시작으로 암송아지 5마리와 수송아지 9마리가 첫 생산된 것.

이번에 태어난 송아지는 지난해 경기도 안성에 소재한 L&H제네틱스연구소 임광택 박사팀과 순창군 한우회가 수정란 이식사업 추진 협약을 체결하고 6농가 30마리의 어미소에 수정란을 이식한 이후 첫 번째 결실이라는 의미가 매우 크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특히 송아지들의 발육상태와 체형이 매우 좋아서 사업에 참여한 농가들이 매우 만족해하고 있으며, 이달 중에 추가로 태어날 송아지에 대한 기대감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50마리의 수정란이식 대상 한우를 선정했다”며 “이 사업을 통해 태어난 고급질 송아지에 대해서는 임광택 박사팀과 함께 철저하게 개별별로 관리해 한우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 부안군 ‘인사비리’ 수사 농공단지로 불뚝 튀나

### 전주지검, 공무원 승진서열 조작 의혹 군청 압수수색

부안군청 공무원 승진후보자 명부 순서가 조작됐다는 의혹(광주일보 2012년 12월24일자 11면)과 관련 전주지검 특수부가 지난 13일 부안군청을 압수수색했다.

제2농공단지 95억원 특혜분양으로 부안군청으로부터 지지를 받은 부안군 공무원이 이번에는 인사비리로 총체적인 난국을 맞게 됐다.

14일 전주지검 형사3부는(부장검사 이용일)에 따르면 13일 수사관들

을 부안군청에 보내 인사 관련 서류 일체를 확보해 현재 분석중이다.

검찰은 또 부안군청 인사 담당자 2명을 임의동행 방식으로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08년 6월 당시 부안군 안팎에서 제기됐던 승진서열 조작설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상당부분 내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승진서열 조작설은 지난 2012년 말

장모 부안군의원이 군정질의를 통해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장 의원은 당시 군정질의에서 “대외비 문서인 승진서열 명부가 서열의 정정이나 변경을 위해 제작상된 것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부안군 안팎에서 검찰 인사비리 의혹수사가 최근 감사원 발표로 드러난 제2농공단지 95억특혜로 불뚝이 점화될 지에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부안=정재용기자 jjv0681@

## 전주국제영화제 수상작 보러 오세요

### 영화관 개관 기념

#### 19일 무료 상영

전주시가 지원하고 (재)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가 운영하는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구 완산보건소, 전주영화제작소 4층)은 오는 19일 개관 4주년을 맞아 제14회 전주국제영화제의 수상작들을 무료로 상영한다.

‘개관 기념 영화제’에는 제14회 전주국제영화제 작품들 중 작품성을 인정받아 수상한 4개 작품이다.

/전주=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상영 시간과 작품은 오전 11시 관객평론가상 수상작 ‘마이 플레이스’를 시작으로, 오후 2시 국제경쟁 부문 대상 ‘파괴된 낙원’, 오후 5시 한국경쟁부문 대상 ‘디셈버’, 오후 7시30분 한국경쟁 부문 CGV무비플라주상 ‘레바는 감정’ 등이다.

이번 개관 기념 영화제는 지정 좌석제로 운영, 해당 회차 1시간 전부터 1인 2매까지 티켓박스에서 티켓팅을 한 후 입장하면 된다.



### 첫머दन 힘까지...

제14회 순창교육지원청 교육장배 초·중학생 육상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이 지난 13일 순창군 공설운동장에서 육상경기를 벌이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관내 초·중학생 선수 및 감독 등 200여명이 참가해 육상, 넓이뛰기, 장대높이뛰기, 포환던지기 등의 종목에서 실력을 겨뤘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 단신

### 정읍농기센터, 고추 품종비교 전시포 조성

정읍시농업기술센터가 농업인들의 고품질 고추 품종 요구에 부응하고 명품고추 생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품종비교 전시포를 설치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기술센터는 센터 내 시험포장에 고추 품종비교 전시포를 조성하고 각 육묘사에서 육묘하고 있는 새로운 품

종 37품종을 식재했다. 기술센터는 “특히 고추 농사에서 가장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탄저병을 막을 수 있는 저항성 품종을 식재, 성과가 좋을 경우 고추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에게 새로운 희망 품종이 될 것이다”고 기대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 고창군, 수도권 귀농·귀촌 예정자 입교식

고창군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MBC아카데미에서 수도권 귀농귀촌 예정자를 위한 제1기 입교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올 초 고창군과 (주)MBC아카데미, (사)고창군귀농귀촌협의회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첫 번째 추진사업이다. 이번 교육은 총 3

기(120명)로 5월부터 9월까지 운영되고, 대상은 고창으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주민 및 영농개시 1년 미만의 귀농인 또는 귀농 준비 중인 도시민이 해당된다. 수업은 이른 30시간과 주말을 활용한 1박2일의 현장체험으로 진행된다.

/고창=음창영기자 cy0370@

### 순창, 강천산군립공원 입장료 인상

순창군이 강천산군립공원의 참신한 관광자원 개발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15일부터 입장료를 인상한다. 군은 어른은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초·중·고생과 군민은 1000원에서 2000원으로 각각 1000원씩 인상하는 군립공원관리조례개정안을 상

정해 지난달 순창군의회 임시회의 결정을 통과했다. 군은 지난달 말부터 순창군 홈페이지와 국내 주요 여행사, 관광협회에 이같은 내용을 알리고, 공원 내 주요 곳곳에 플래카드와 안내문을 내걸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 전북도, 1122억 들여 주택개량 등 4개 사업 추진

전북도는 농어촌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올해 1122억원을 들여 주택개량사업 등 4개 사업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농어촌 지역 내 노후 불량주택 2067가구를 개량하고 빈집 1500가구도 정비할 방침이다.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농어촌 리

모델링 시범사업’에 뽑힌 순창군 방축마을에서는 특히 15억원이 투입돼 마을회관 등 대대적인 개량공사가 펼쳐진다.

도는 또 ‘나눔의 희망의 집’ 고쳐주기 행사 대상으로 1666가구를 선정했다.

/전주=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